FUND FLOW

순유출로 전환된 국내외 ESG 펀드 시장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oh.gwang-young@shinyoung.com

글로벌 ESG 시장은 어려운 거시 환경, 그린 워싱 우려, 규제 변화, ESG를 둘러싼 정치적 반발 등 여러 요인이 ESG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2025년 3분기 글로벌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인 551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함. 지역별로는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510억 달러 감소하며 순유출을 주도함. 이는 특정 연금이 펀드에서 운용 위탁 계좌로 이전하면서 펀드에서 480억 달러를 인출했기 때문임. 한편 3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7,35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 증가함. 이중 유럽 지역의 ESG펀드 규모는 대규모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4% 증가한 3조 1,87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한편 국내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도 그동안 자금 유입을 주도했던 ESG(채권)이 순유출로 전환되면서 3개월 만에 월간 기준 순유출로 전환됨. 하지만 연초 이후 기준으로는 여전히 3.5조 원 이상 순유입을 기록 중으로 향후 시장의 변화 등을 주의 해서 살펴봐야 할 것임.

신영증권

Content

I. 10월 국내 펀드시장 결산 3

1. 전월말 대비 4.1% 성장한 국내 펀드시장 3
2.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 6
3. 세부 유형별 펀드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7
4. 국내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9
5. 해외 펀드 지역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12
6. 해외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11
7. 신규 펀드 설정 현황 및 주요 신규 공모형 펀드 16

II. 순유출로 전환된 국내외 ESG 펀드 시장 19

1. 순유출을 보이는 국내 ESG 펀드 유형들 19
2. 2025년 3분기 글로벌 ESG 펀드 동향 21
3. 국내 ESG 펀드 동향 33

순유출로 전환된 국내외 ESG 펀드 시장

분석의 기본 가정
-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시장금리 반등 경계
- 국내외 주요 ESG 정책 예정대로 시행 가정

10월 국내 펀드시장 결산

(1) 전월말 대비 4.1% 성장한 국내 펀드시장

전체 시장 규모: 한 달 동안 50.5조 증가하여 전월말 대비 4.1% 성장한 약 1,282조 기록

국내 집합투자증권(=펀드)시장 전체 설정원본(=설정액)은 10월 한 달 동안 PEF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MMF를 중심으로 주식형, 특별자산형 등의 유형이 증가를 보인 영향으로 총 50조 4,704억 증가하여 전월말 대비 4.1% 성장한 약 1,282.4조를 기록했다. 지난 7월 1,200조 원대를 돌파한 이래 4개월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5월 1,000조 원대를 처음 돌파한 이래 18개월 연속 유지하고 있어 1,000조 원대에 안착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국내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833조, 해외 투자 펀드 규모는 449조로 국내 펀드 : 해외 펀드 = 65.0%:35.0%로 전월 말 대비 국내 펀드 비중이 0.6%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는 MMF을 중심으로 국내 펀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MMF 설정액 증가: 10월 들어 분기초 자금 유입과 시중 여유 자금 유입 등으로 전월말 대비 16.2조 증가한 213.3조 기록

지난 달 명절 자금 수요로 자금이 유출되고 특히 분기 말 자금 수요와 법인 자금 수요 등으로 28조 가까이 감소세를 보였던 MMF 설정액은 10월 들어 다시 분기초 자금 유입과 시중 여유 자금 유입 등으로 전월말 대비 16.2조 증가해 213.3조로 마감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1%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계절성을 보이는 MMF 설정액은 올해 들어 시중 유동성 등이 대거 유입되며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2025년 1월~10월 연평균 설정액 잔고는 218.6조 대로 직전 년도의 199.5조 보다 9.6% 증가한 수준이다.

재간접형 펀드 설정액은 10월에도 증가하여 23개월 연속 증가 기록

재간접형 설정액은 이번 달 3조 5,020억 증가하며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이번 달 자금 유입이 둔화되어 576억 증가에 그쳤으나 5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도표 1. 국내/해외 유형별 펀드 설정액 현황

구분	국내			해외			총합계
	공모	사모	소계	공모	사모	소계	
주식형	87,665	11,270	**98,934**	83,108	9,655	**92,764**	**191,698**
혼합형	11,991	12,735	**24,726**	6,783	1,375	**8,157**	**32,884**
- 혼합주식형	1,929	6,340	**8,269**	1,742	339	**2,081**	**10,350**
- 혼합채권형	10,062	6,395	**16,457**	5,041	1,036	**6,077**	**22,534**
채권형	98,902	114,962	**213,864**	7,776	5,227	**13,003**	**226,867**
MMF	152,428	58,525	**210,954**	2,351	-	**2,351**	**213,305**
파생상품	46,836	11,755	**58,590**	25,832	12,122	**37,954**	**96,545**
부동산	992	94,502	**95,494**	1,360	86,012	**87,371**	**182,866**
재간접	2,165	13,312	**15,477**	30,461	48,097	**78,558**	**94,034**
특별자산	8,368	55,936	**64,304**	425	91,940	**92,365**	**156,669**
PEF	-	5,054	**5,054**	-	-	**-**	**5,054**
혼합자산	2,494	43,382	**45,876**	5,582	30,862	**36,444**	**82,321**
전체	**411,841**	**421,434**	**833,274**	**163,678**	**285,431**	**449,109**	**1,282,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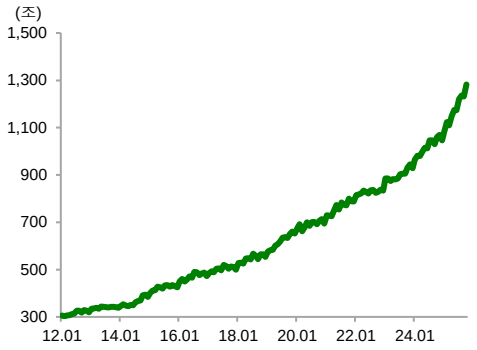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십억좌, 2025-10-31기준

도표 2. 국내/해외 유형별 펀드 설정액 전월말 대비 증감규모 및 증감률

구분	증감 규모			증감률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주식형	12,965	9,078	**22,043**	15.1%	10.8%	**13.0%**
혼합형	241	450	**691**	1.0%	5.8%	**2.1%**
- 혼합주식형	211	-17	**194**	2.6%	-0.8%	**1.9%**
- 혼합채권형	30	467	**498**	0.2%	8.3%	**2.3%**
채권형	1,873	369	**2,241**	0.9%	2.9%	**1.0%**
MMF	15,960	225	**16,184**	8.2%	-	**8.2%**
파생상품	1,518	1,298	**2,815**	2.7%	3.5%	**3.0%**
부동산	-58	116	**58**	-0.1%	0.1%	**0.0%**
재간접	220	3,282	**3,502**	1.4%	4.4%	**3.9%**
특별자산	744	800	**1,543**	1.2%	0.9%	**1.0%**
PEF	-88	0	**-88**	-1.7%	-	**-1.7%**
혼합자산	216	1,265	**1,481**	0.5%	3.6%	**1.8%**
전체	**33,589**	**16,881**	**50,470**	**4.2%**	**3.9%**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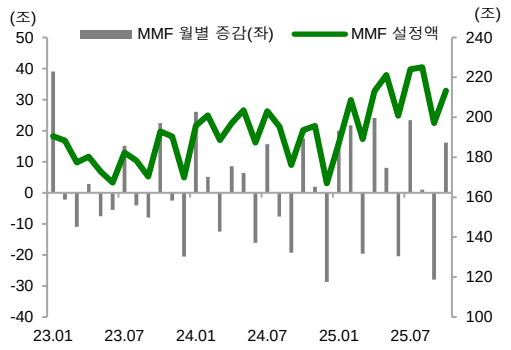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십억좌, 2025-10-31기준

도표 3. 시장 전체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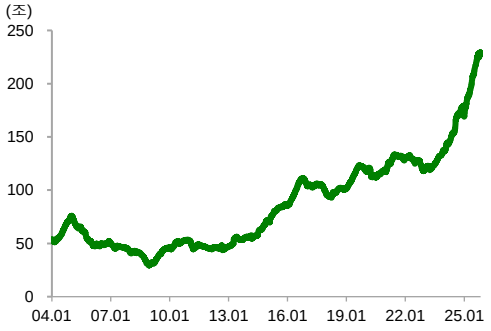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MMF 설정액 및 월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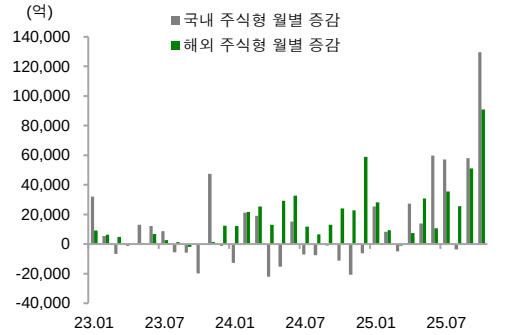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채권형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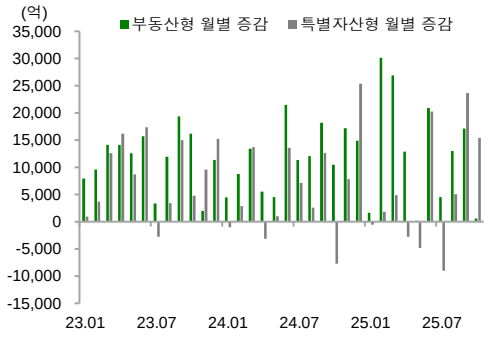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국내/해외 주식형 설정액 월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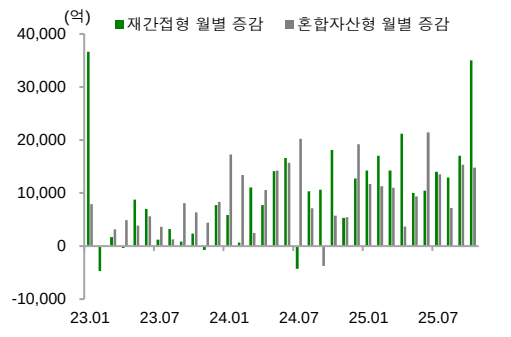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31기준

도표 7.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설정액 월간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31기준

도표 8. 재간접형, 혼합자산형 설정액 연간 증감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31기준

(2)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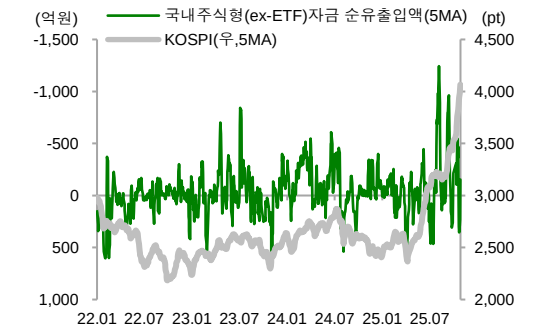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10월 들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상승세로 시작했다. 여기에 9월 수출 호조와 외국인 매수세 유입, 특히 AI 관련 기대감이 확대되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이후 APEC을 앞두고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월말 미국 연준의 25bp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AI 버블 논란 및 빅테크 기업 실적 부담이 우려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3분기 호실적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으로 반도체와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로 인해 10월말 현재 KOSPI와 KOSDAQ은 각각 전원말 대비 +19.94%, +6.94%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8,839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7월 이후 4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을 ETF와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 나누어 살펴보면, ETF로의 자금 흐름은 증시 강세에 투자 자금이 몰리며 1조 1,533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5월을 제외하고 매월 순유입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의 월간 자금 흐름: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성 환매 증가 등으로 2,694억 원 순유출 되며 3개월 연속 순유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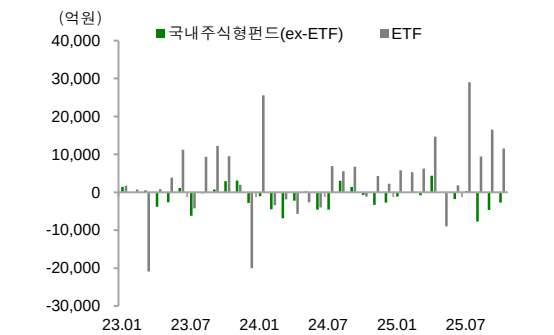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의 자금 흐름은 2,694억 원 순유출되며 3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월 대비 투자자금 유입과 환매가 모두 증가했는데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성 환매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결국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9. 국내 주식형 펀드(ex-ETF)자금흐름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국내 주식형 펀드 월별 자금 순유출입액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31기준

(3) 세부 유형별 펀드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인덱스주식섹터 유형 펀드 설정액 증가: 일부 반도체, 화장품 업종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설정액이 2,777억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10월 공모형 국내 투자 펀드 설정액 증감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주식형은 패시브 유형을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되어 증가를 기록했다. 설정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국내 인덱스주식형 펀드 중 인덱스주식섹터 유형으로 일부 반도체, 화장품 업종 추종 펀드 등으로는 자금이 유입되어 2,777억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인덱스주식기타 유형은 일부 반도체 집중 투자 펀드, 고배당 펀드, 전력핵심설비 관련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한달 동안 1,937억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인덱스주식코스피200유형도 양호한 투자 심리 속에 자금이 유입 되며 1,308억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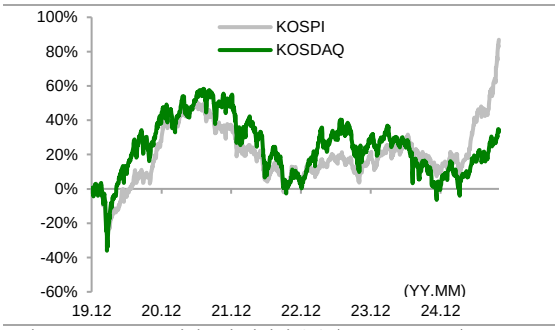
국내 액티브주식형 중 액티브주식일반 유형은 일부 가치주 펀드와 소부장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출되어 한 달 동안 657억 순유출되며 2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

반면 국내 액티브주식형 펀드는 대부분의 세부 유형에서 차익 실현성 환매가 출회되어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 중 액티브주식일반 유형은 일부 가치주 펀드와 소부장 펀드 등에서 환매가 출회되어 한 달 동안 657억 순유출 되며 2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또한 액티브주식배당 유형은 높은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성 환매 증가로 474억 순유출 되며 2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달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순유입을 기록했던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 속에 환매가 출회되어 268억 순유출을 기록했다. 또한 액티브주식테마 유형은 일부 ESG 펀드와 삼성그룹주 펀드 등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199억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액티브주식섹터 유형은 일부 IT섹터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38억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공모형 국내 채권형 펀드는 기관의 자금 집행과 채권형 ETF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한 달 동안 5,392억 증가했다. 세부 유형 중 특히 초단기채권 유형은 6,600억 증가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는데 이로써 3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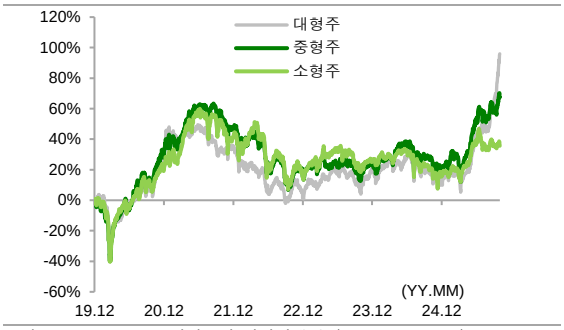
월간 유형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 세부 유형 중 레버리지 펀드 등이 포함된 인덱스주식기타 유형이 증시 급등 영향으로 +20.84% 상승하는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인덱스주식코스피200 유형도 코스피200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20.82% 상승하는 강세를 기록했다.

도표 11. KOSPI VS KOSDAQ 누적수익률 추이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9.12.30 = 0)

도표 12. KOSPI 대형주 VS 중형주 VS 소형주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9.12.30 = 0)

도표 13. 국내 펀드 세부 유형별 설정액 및 수익률

대유형	소유형	설정액(억)			수익률(%)					
		'251031	'250930	증감	1M	3M	YTD	6M	1Y	3Y
국내 주식형	액티브주식일반	78,124	78,781	-657	15.02	22.29	54.08	69.42	59.68	79.16
	액티브주식중소형	8,185	8,453	-268	8.19	13.36	40.35	54.72	46.96	60.84
	액티브주식배당	26,295	26,769	-474	11.04	15.04	43.28	53.00	44.52	63.32
	액티브주식섹터	6,382	6,345	38	20.75	36.07	74.32	79.90	60.84	69.45
	액티브주식테마	10,014	10,213	-199	16.78	24.65	56.69	68.31	57.11	71.74
	인덱스주식코스피200	111,627	110,319	1,308	20.82	30.77	69.94	83.41	69.78	93.79
	인덱스주식KRX300	662	666	-4	19.85	29.47	66.50	79.22	65.26	89.97
	인덱스주식섹터	69,628	66,851	2,777	20.58	23.69	48.51	48.86	27.44	34.45
	인덱스주식기타	293,126	291,189	1,937	20.84	29.73	70.14	86.73	65.82	85.58
국내 혼합형	자산배분	4,055	6,691	-2,636	6.84	10.99	27.56	35.44	29.35	41.33
	주식혼합	26,735	24,565	2,170	9.08	14.02	30.01	37.31	31.86	45.57
	채권혼합	146,244	146,029	215	3.00	4.75	9.71	12.04	11.92	19.91
	채권알파	4,475	4,920	-445	0.57	1.25	2.68	4.13	4.67	13.27
	하이일드혼합	14,027	14,011	15	0.13	1.25	2.49	4.27	4.67	13.45
국내 채권형	국공채권	103,075	103,584	-509	-0.73	-1.10	-1.90	1.28	2.67	14.20
	회사채권	67,962	65,888	2,074	-0.03	0.31	1.16	3.36	4.47	11.49
	일반채권	310,403	313,175	-2,773	-0.37	-0.42	-0.43	2.29	3.58	12.64
	초단기채권	634,278	627,678	6,600	0.21	0.64	1.37	2.48	3.09	7.13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2025-10-31기준

(4) 국내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비교적 최근 1년 이내 신규로 설정된 일부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어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 기록

월간 국내 주식형 펀드(ex-ETF)의 펀드별 자금흐름 증감을 살펴보면, NH-Amundi성장주도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KB새로운대한민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하나파이팅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등 비교적 최근 1년 이내 신규로 설정된 일부 펀드가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일부 펀드가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BNKK200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마이다스K200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운용) 등의 인덱스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상위를 기록했다.

일부 인덱스 펀드,레버리지 펀드가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성 환매 출회로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 기록

반면 자금흐름이 감소한 펀드를 살펴보면,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운용) 등의 일부 레버리지 펀드 또는 인덱스 펀드가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VIP한국형가치투자증권자투자신탁[주식],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등의 일부 가치주 펀드 또는 배당주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등의 일부 ESG 펀드도 월간 자금 흐름 증감 하위를 기록했다.

도표 14.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흐름 증감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1M	YTD	1Y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	2013-07-09	4,060	9,058	**496**	14.70	77.97	74.45
NH-Amundi성장주도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25-10-14	457	518	**477**	-	-	-
KB새로운대한민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25-07-23	1,103	1,417	**395**	16.35	-	-
하나파이팅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24-12-26	518	991	**309**	18.33	93.71	-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9-10-21	2,860	7,488	**257**	26.75	100.60	79.82
BNKK200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22-09-23	619	1,238	**226**	20.64	84.90	71.51
마이다스K200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2022-02-14	207	361	**149**	20.23	87.24	74.42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운용)	2008-12-22	2,344	5,580	**131**	20.90	84.23	70.93
대신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07-11-28	572	1,541	**118**	20.38	84.52	71.62
우리나라신성장TOP20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24-03-08	250	376	**86**	20.97	75.44	62.55

단위: 억, %, 2025-10-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흐름 증감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1M	YTD	1Y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3-04-22	2,555	8,277	**-1,038**	44.73	216.92	167.87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파생형)(운용)	2006-03-15	4,524	10,184	**-898**	20.95	84.53	71.19
VIP한국형가치투자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3-04-03	6,215	10,765	**-794**	1.45	43.75	42.99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07-04-16	8,858	15,251	**-230**	10.02	51.99	42.89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4-09-22	893	1,778	**-219**	10.54	50.30	43.68
다올VIP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9-07-20	527	1,851	**-217**	11.02	83.93	83.55
KB코리아뉴웨이브증권자신탁(주식)(운용)	2020-10-07	892	1,408	**-201**	16.42	73.89	59.85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19-08-14	2,040	7,324	**-200**	22.48	98.60	85.50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2009-04-21	810	5,583	**-194**	17.84	73.09	61.64
베어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6-08-29	2,418	5,374	**-185**	9.85	50.17	41.56

단위: 억, %, 2025-10-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일부 코스피200 레버리지 펀드가 관련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상위 기록

펀드별로 월간 성과를 살펴보면,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한국투자두배로증권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파생형), IBK2.0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 [주식-파생]등의 코스피200 레버리지 펀드가 관련 증시 강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펀드가 AI발 ESS 기대감 등으로 보유중인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의 소부장 펀드도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일부 중소형 가치주 펀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증시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 기록

반면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자투자신탁(주식), VIP한국형가치투자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투자신탁 1(주식) 등의 중소형 가치주 펀드는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에 올랐다. 또한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등의 펀드도 코스닥 증시의 상대적 부진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에 올랐다. 또한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주식]_운용 등의 일부 헬스케어 펀드도 관련 업종의 상대적 부진에 월간 수익률 하위에 올랐다.

도표 16.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1M	3M	6M	YTD	1Y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010-12-27	458	49.98	77.03	210.57	252.37	193.35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운용)	2013-04-23	477	44.75	68.76	181.52	218.33	169.01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3-04-22	2,555	44.73	68.63	180.59	216.92	167.87
한국투자두배로증권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파생형)	2013-05-24	139	44.68	68.64	181.02	216.09	167.80
IBK2.0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 [주식-파생]	2014-03-13	137	44.47	68.46	180.85	216.92	168.21
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1-02-04	247	32.53	31.73	68.73	78.97	43.45
하나파워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10-08-17	109	32.26	49.00	119.89	143.48	115.46
NH-Amundi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09-06-17	781	32.08	48.46	118.96	141.99	114.35
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9-06-08	302	27.70	27.38	66.02	70.34	48.04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9-10-21	2,860	26.75	47.04	96.16	100.60	79.82

단위: 억, %, 2025-10-31 기준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1M	3M	6M	YTD	1Y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7-07-23	344	-1.91	-8.85	3.57	20.02	22.74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018-04-05	197	-0.30	4.77	8.65	13.23	12.66
브이뉴그로쓰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5-12-02	103	0.38	5.29	32.58	48.93	36.57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018-04-05	287	1.35	14.51	42.59	65.39	51.46
VIP한국형가치투자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3-04-03	6,215	1.45	3.00	23.56	43.75	42.99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8-07-08	1,103	2.13	6.06	35.48	81.17	64.16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3-01-30	235	2.38	10.66	28.39	36.47	26.22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투자신탁 1(주식)	2011-05-20	410	3.30	8.74	26.61	43.67	48.05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2015-06-01	600	3.42	11.83	46.95	62.72	59.18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주식]_운용	2009-11-03	1,265	4.31	9.28	26.20	36.74	24.63

단위: 억, %, 2025-10-31 기준
자료: 국내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 펀드/ 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5) 해외 펀드 지역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북미 펀드 설정액 증가: S&P500,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일부 AI전력 설비, 배당주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한 달 동안 1조 4,605억 증가함

해외 펀드 월간 설정액 증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펀드가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특히 일부 AI전력설비, 배당주 펀드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1조 4,605억 증가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이후 매월 자금이 유입되며 29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 중이며 해당 기간 동안 총 23조 1720억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북미 증시의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매월 자금흐름이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연초 이후 같은 기간 설정액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글로벌 펀드는 글로벌 테크, 인공지능과 AI반도체, 원자력과 AI전력인프라 관련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3,675억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 펀드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과 정부의 부양 정책 그리고 일부 테크 기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한 달 동안 2,399억 증가했다.

반면 인도 펀드는 연초 이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자 환매에 나선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자금이 유출되어 한 달 동안 575억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도표 18. 해외 주식형 펀드 지역별 설정액 및 수익률

구분	설정액(억)			수익률(%)					
지역/국가	'251031	'250930	증감	1M	3M	6M	YTD	1Y	2Y
글로벌	122,042	118,367	**3,675**	8.03	16.29	35.43	24.04	28.81	72.18
글로벌이머징	1,392	1,359	**32**	6.80	14.41	26.97	30.03	25.40	51.86
EMEA	27	28	**0**	3.07	8.34	16.52	25.50	29.08	80.83
브릭스	1,780	1,791	**-11**	3.16	12.24	19.42	23.65	18.16	36.75
신흥아시아	2,626	2,692	**-66**	4.30	7.50	10.00	3.29	7.42	33.73
친디아	855	878	**-23**	3.16	10.43	17.03	18.32	14.93	38.97
중국	65,127	62,728	**2,399**	2.58	17.53	30.95	31.69	32.77	53.67
중화권	17,896	18,447	**-551**	5.16	31.60	41.26	38.91	45.19	56.32
베트남	6,676	6,544	**133**	3.47	16.47	35.01	19.53	24.49	50.52
인도	15,815	16,390	**-575**	7.21	5.78	3.68	-1.02	2.36	36.43
아시아퍼시픽	1,262	1,320	**-58**	8.29	18.03	32.01	27.92	32.34	72.27
아시아퍼시픽(ex_J)	3,581	3,684	**-103**	3.01	9.22	19.14	15.92	15.43	37.59
일본	2,593	2,493	**100**	10.22	22.96	34.77	28.39	34.89	65.39
유럽	2,187	2,359	**-173**	3.17	3.88	10.21	18.02	17.79	44.64
신흥유럽	507	507	**-1**	4.64	7.64	11.70	31.10	40.30	46.97
러시아	1,946	1,947	**-1**	2.57	8.33	6.47	-5.63	2.84	2.22
북미	338,334	323,729	**14,605**	7.45	14.07	31.13	16.14	25.49	86.30
중남미	399	405	**-7**	2.07	13.81	14.85	32.69	23.58	21.51
브라질	412	416	**-4**	3.12	17.51	14.48	33.81	19.73	23.58

자료: 해외 공모펀드형 기준,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31기준

해외 펀드 월간 수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의 강세 영향으로 글로벌 펀드는 한 달 동안 +8.03%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다. 북미 펀드도 증시 강세 영향으로 한 달 동안 +7.4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증시는 월초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시작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후 셧다운 장기화 우려와 AI거품론 등으로 차익 실현성 매도가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와 일부 미국 지역은행 부실 대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과 반도체 관련주 강세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APEC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 기대와 9월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월말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과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월간 기준으로 강세로 마감했다.

일본 펀드 초강세: 일본 증시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환율 환경, 밸류에이션 매력, 외국인 매수세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급등했기 때문

세부 유형 중 일본 펀드는 일본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10.2% 상승하는 초강세를 보였다. 이는 다카이치 자민당 대표 선출 이후 재정 확대와 추가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데다가 엔저로 인한 기업의 수출 실적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증시 훈풍 그리고 선진국 중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6) 해외 주식형 펀드별 설정액 증감 및 수익률 현황

글로벌 펀드로의 월간 자금흐름 유입 강세: 일부 반도체 펀드, 테크주 펀드, 우주항공 펀드, 휴머노이드 펀드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월간 자금흐름 증가 상위 기록

해외 주식형 펀드(ex-ETF)의 펀드별 월간 자금흐름 증감을 살펴보면,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모),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H(주식)(모), NH-Amundi글로벌우주항공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등의 글로벌 펀드가 월간 자금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또한 미래에셋차이나과창판증권투자신탁(주식), KCGI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 등의 중국 펀드도 월간 이후 자금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등의 일부 금 펀드도 월간 자금흐름 증감 상위에 올랐다.

반면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B스타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운용), 한국투자미국우선주의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모) 같은 북미 펀드가 월간 자금흐름 증감 하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자율주행증권투자신탁(주식)(모),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등의 글로벌 펀드도 월간 자금흐름 증감 하위에 올랐다. 또한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마이다스아시아리더스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운용) 등의 펀드가 월간 자금흐름 증감 하위에 올랐다.

도표 19.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흐름 증감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1M	YTD	1Y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모)	2023-04-26	1,261	4,012	**1,398**	15.54	44.86	60.12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5-06-17	10,502	47,661	**1,052**	5.01	21.13	21.21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H(주식)(모)	2023-03-27	1,458	3,907	**627**	13.02	44.88	51.70
피델리티글로벌금융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08-09-10	809	1,416	**453**	-0.77	12.26	14.45
NH-Amundi글로벌우주항공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22-05-24	1,059	3,093	**425**	7.42	67.53	71.84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25-02-24	399	560	**320**	14.60	0.00	0.00
미래에셋차이나과창판증권투자신탁(주식)	2020-11-12	951	1,133	**299**	4.62	43.20	57.04
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008-09-18	885	1,122	**196**	-0.54	92.91	61.50
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	2008-09-10	405	708	**188**	2.22	90.64	69.98
KCGI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	2016-05-02	2,167	2,467	**184**	6.00	40.38	46.06

단위: 억, %, 2025-10-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 : 2025년 이후 출시된 펀드의 경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자금흐름 증감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증감	1M	YTD	1Y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자율주행증권투자신탁(주식)(모)	2017-10-26	7,773	12,206	**-776**	6.39	20.66	27.83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3-02-20	6,966	13,471	**-416**	2.06	10.97	8.34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0-03-30	6,005	19,560	**-331**	3.58	11.71	14.30
삼성글로벌배당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022-03-18	130	141	**-290**	1.43	8.45	5.60
KB스타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운용)	2017-12-27	1,882	6,765	**-240**	6.02	21.48	25.35
한국투자미국우선주의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모)	2025-01-17	59	64	**-178**	2.50	0.00	0.00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15-09-18	848	4,736	**-169**	8.66	0.66	5.09
마이다스아시아리더스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운용)	2015-05-15	314	976	**-156**	10.02	31.69	36.50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020-04-16	1,268	1,908	**-136**	-1.58	1.40	-2.89
KB스타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운용)	2009-06-03	1,881	5,718	**-131**	3.25	15.33	16.87

단위: 억, %, 2025-10-31 기준, 결산재투자 제외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운용 펀드/모펀드 대상, ETF제외,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클린 테크 펀드 강세: 미국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일부 사모 펀드들의 높은 관심 속에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상위 기록

펀드별로 월간 성과를 살펴보면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증권투자신탁(H)[주식](종류), 미래에셋글로벌클린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2[주식], 미래에셋글로벌클린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삼성에너지트랜지션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KB글로벌클린에너지수소경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등의 글로벌 클린 테크 펀드가 미국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일부 사모 펀드들의 높은 관심 속에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또한 삼성글로벌반도체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_운용,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모) 등의 글로벌 반도체·AI 펀드도 관련주의 강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Gold 펀드 약세: 국제 금가격이 조정을 보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 기록

반면 DB차이나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H)[주식]_운용, DB차이나증권투자신탁 1[주식]_운용 등의 일부 중국 펀드는 관련 주와 홍콩 증시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신한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 등의 일부 Gold 펀드는 국제 금가격이 연중 급등 이후 누적된 기술적 조정과 차익 실현 매도 출회, 특히 인도 등 일부 국가의 계절적 수요 감소와 주요 매수주체의 투자 태도 변화, 그리고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등으로 조정을 보인 영향으로 월간 수익률 하위에 올랐다.

도표 21.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상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1M	3M	6M	YTD	1Y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증권투자신탁(H)[주식](종류)	2021-09-23	651	21.55	34.66	90.80	87.24	88.05
삼성글로벌반도체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21-09-29	512	20.74	33.84	73.42	48.59	49.79
미래에셋글로벌클린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2[주식]	2007-04-11	187	18.04	28.18	63.28	46.76	47.18
미래에셋글로벌클린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7-04-17	1,427	18.03	28.18	63.26	46.70	47.12
유리필라델피아반도체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_운용	2020-02-05	1,008	17.11	29.06	65.62	38.17	38.63
미래에셋아시아테크증권투자신탁(주식)	2023-06-16	280	16.23	32.78	72.03	56.22	58.07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증권자투자신탁UH(주식)(모)	2023-04-26	1,261	15.54	29.37	70.80	44.86	60.12
삼성에너지트랜지션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021-01-28	503	14.92	32.58	77.24	48.77	44.61
KB글로벌클린에너지수소경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21-02-15	352	14.55	25.22	56.97	44.97	58.53
우리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3-05-31	225	13.98	29.86	40.12	33.17	19.35

단위: 억, %, 2025-10-31 기준,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펀드/모펀드 대상, ETF, H/UH중 우수 펀드만

도표 22.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수익률 하위 Top 10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1M	3M	6M	YTD	1Y
DB차이나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H)[주식]_운용	2019-05-13	128	-9.04	-18.16	18.20	39.32	28.86
iM에셋월드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2008-09-19	319	-3.41	1.47	8.28	7.23	3.00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2007-04-16	268	-2.73	31.52	38.45	92.69	63.90
미래에셋글로벌PE&VC증권투자신탁(주식)	2022-06-17	210	-2.05	-4.76	3.49	-6.54	-5.26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020-04-16	1,268	-1.58	-2.05	3.83	1.40	-2.89
한국투자SSGA글로벌저변동성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017-02-13	168	-1.28	0.79	0.78	7.54	7.08
DB차이나증권투자신탁 1[주식]_운용	2006-05-09	119	-1.16	2.14	15.11	19.37	15.87
신한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	2007-11-05	533	-1.05	26.35	31.30	78.17	55.28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 1[주식]_운용	2007-03-12	825	-0.91	-5.73	-0.15	9.02	10.17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07-02-27	512	-0.88	1.35	0.14	7.87	8.29

단위: 억, %, 2025-10-31 기준,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공모형 펀드 기준, 100억 이상, 1년 이상 운용펀드/모펀드 대상, ETF, H/UH중 부진 펀드만

(7) 신규 펀드 설정 현황 및 주요 신규 공모형 펀드

신규 펀드 출시 현황 및 규모: 월간 221개 신규 펀드 론칭, 총 6조 335억 설정

월간 유형별 신규 펀드 설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1개의 신규 펀드가 설정되었으며 설정 규모는 총 6조 335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273억 규모의 펀드가 설정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신규 펀드 출시건수는 5.2% 증가했으나 자금 유입은 증가하여 설정규모는 9.9% 증가했다. 이를 공모와 사모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공모 펀드는 펀드당 평균 약 459억의 신규 펀드가 총 40개 설정되었으며, 이를 합한 규모는 총 1조 8,365억이었다. 또한 사모 펀드는 펀드당 평균 약 232억의 신규 펀드가 총 181개 설정되었으며, 이를 합한 규모는 총 4조 1,970억 이었다.

신규 펀드가 제일 많이 설정된 유형은 혼합자산형으로 총 60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7,678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128억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채권형으로 총 31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1조 6,434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530억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특별자산형으로 총 30개의 펀드가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각각 총 7,799억으로 펀드당 평균 약 260억 수준의 펀드가 설정되었다.

펀드 당 평균 신규 설정 규모가 가장 큰 펀드 유형은 재간접형으로 펀드당 평균 647억 규모의 펀드가 19개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1조

2,298억 이었다. 다음으로는 채권형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혼합채권형으로 펀드당 평균 264억 규모의 펀드가 13개 설정되었는데 그 규모는 총 3,428억 이었다.

도표 23. 월간 유형별 신규 펀드수 및 설정액

구분	세부 구분	공모			사모			합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주식형	펀드수	8	6	**14**	7	1	**8**	**22**
	설정액	1,689	760	**2,449**	1,126	13	**1,139**	**3,588**
혼합 주식	펀드수	2	0	**2**	6	1	**7**	**9**
	설정액	578	0	**578**	501	2	**503**	**1,081**
혼합 채권	펀드수	4	0	**4**	9	0	**9**	**13**
	설정액	1,504	0	**1,504**	1,924	0	**1,924**	**3,428**
채권형	펀드수	6	0	**6**	23	2	**25**	**31**
	설정액	3,303	10	**3,313**	13,047	74	**13,121**	**16,434**
재간접	펀드수	1	7	**8**	4	7	**11**	**19**
	설정액	5,155	5,130	**10,285**	524	1,489	**2,013**	**12,298**
단기 금융	펀드수	0	0	**0**	0	0	**0**	**0**
	설정액	0	0	**0**	0	0	**0**	**0**
파생형	펀드수	2	3	**5**	3	3	**6**	**11**
	설정액	86	140	**226**	2,048	434	**2,482**	**2,708**
부동산	펀드수	0	0	**0**	16	10	**26**	**26**
	설정액	0	0	**0**	3,298	2,030	**5,328**	**5,328**
특별 자산	펀드수	0	1	**1**	8	21	**29**	**30**
	설정액	0	11	**11**	1,226	6,562	**7,788**	**7,799**
혼합 자산	펀드수	0	0	**0**	39	21	**60**	**60**
	설정액	0	0	**0**	3,948	3,730	**7,678**	**7,678**
합계	펀드수	**23**	**17**	**40**	**115**	**66**	**181**	**221**
	설정액	**12,315**	**6,050**	**18,365**	**27,640**	**14,330**	**41,970**	**60,335**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31 기준
단위: 억,개

신규로 설정된 공모 펀드를 살펴보면, 외국인 따라하기 펀드, 테마로테이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펀드가 출시되어 투자자들의 니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시 강세에 다수의 목표전환형 펀드가 출시되었다. 또한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다양한 국내외 채권형 펀드가 출시되었다. 또한 해외 주식형 펀드와 해외 혼합형 펀드 등 해외 펀드가 다양하게 출시되었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다양한 ETF 특히 채권형 ETF와 해외 투자 ETF, 그리고 EMP가 다수 출시되어 투자자들의 장기 재산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24. 월간 주요 신규 공모 펀드

구분	펀드명	유형*	설정일	설정액**
1	한화자사주품은고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51001	1
2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26[채권](종류)	ELF	20251001	10
3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19[ELS-파생형]_운용	ELF	20251002	72
4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EK-59[ELS-파생형](종류)	ELF	20251002	52
5	NH-Amundi성장주도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액티브주식일반	20251014	457
6	NH-Amundi성장주도코리아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채권혼합	20251014	245
7	우리외국인따라하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액티브주식일반	20251015	6
8	DB다이렉트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_운용	초단기채권	20251016	1,054
9	KBRISE미국고배당다우존스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1017	100
10	KBRISE글로벌게임테크TOP3Plus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멀티/기타섹터	20251017	100
11	키움KIWOOMUS대형500월간목표혜지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파생재간접형]	해외자산배분	20251017	80
12	미래에셋TIGER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51020	872
13	삼성KODEX코리아소버린A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섹터	20251020	718
14	신한코어패러다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	주식혼합	20251020	554
15	트러스톤글로벌테마로테이션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운용)	글로벌주식	20251020	100
16	한국투자금모으기특별자산투자신탁(금-재간접형)(모)	원자재	20251020	11
17	대신국채분할매매&고배당주30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채권혼합	20251024	760
18	현대인베스트먼트넥스트하이킥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2(주식혼합)	주식혼합	20251024	553
19	한국투자ACE미국AI테크핵심산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1024	390
20	신한SOL미국넥스트테크TOP1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1024	305
21	DB마이티200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51024	103
22	키움더드림중단기크레딧증권투자신탁[채권]	일반채권	20251027	1,053
23	삼성KODEX26-12금융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만기매칭채권	20251027	1,050
24	삼성KODEXK조선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섹터	20251027	384
25	타임폴리오TIMEFOLIO글로벌탑픽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글로벌주식	20251027	360
26	한국투자항셍테크스텝업분할매수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혼합-재간접형)(모)	해외채권혼합	20251027	199
27	유진챔피언코리아마켓리더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채권혼합	20251027	107
28	NH-AmundiHANARO증권고배당TOP3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인덱스주식기타	20251027	104
29	플러스핵심성장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	주식혼합	20251028	25
30	iM에셋타이거포커스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임시미분류	20251029	1,244
31	DB지수연계더블플러스증권투자신탁SEK-120[ELS-파생형]_운용	ELF	20251029	14
32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EK-60[ELS-파생형](종류)	ELF	20251029	7
33	KCGI코리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4[채권혼합]	채권혼합	20251030	539
34	삼성알아서투자해주는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5[채권혼합-재간접형]	채권혼합	20251031	5,155
35	KB미중AI테크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3(채권혼합-재간접형)(운용)	해외주식혼합	20251031	3,571
36	미래에셋TIGER미국AI전력SMR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북미주식	20251031	300
37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27[채권](종류)	ELF	20251031	29
38	KB미국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UH)(운용)	글로벌하이일드채권	20251031	10
39	KB미국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운용)	글로벌하이일드채권	20251031	10
40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인컴추구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모)	해외채권혼합	20251031	0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설정일순 정렬
단위: 억, *유형: Fn-Spectrum 세부 평가 유형 기준, **설정액: 2025-10-31기준

순유출로 전환된 국내외 ESG 펀드 시장

(1) 순유출을 보이는 국내 ESG 펀드 유형들

10월 KOSPI는 초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8,839억 원 순유입 되며 4개월 연속 순유입 기록함

10월 글로벌 증시는 월초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강세로 상승세로 시작했다. 이후 셧다운 장기화 우려와 AI거품론 등으로 차익 실현성 매도가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와 일부 미국 지역은행 부실 대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과 반도체 관련주 강세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APEC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 기대와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월간 기준으로 초강세로 마감했다. 이로 인해 KOSPI는 한 달 동안 +19.94% 급등했으며 KOSDAQ은 +6.94% 상승했다. KOSPI 대형주 지수는 +22.63%를 기록한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각각 +6.07%, +0.26%를 기록하여 Size측면에서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번 달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8,839억 원 순유입 되어 4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성 환매 출회로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는 순유출을 기록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흐름을 ETF와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 나누어 살펴보면, ETF로의 자금 흐름은 한 달 동안 총 1조 1,533억 원 순유입 되며 4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ex-ETF)로의 자금 흐름은 2,694억 원이 순유출 되며 3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신규 투자 자금 유입과 환매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증시 급등으로 차익 실현성 환매가 증가하여 순유출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Fn-Spectrum에서 발표하는 테마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순유입을 기록한 유형은 ETF(해외주식), ETF(기타), ETF(국내주식), 퇴직연금(공모) 등의 ETF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시장의 부진 속에 테마 유형 중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도 순유출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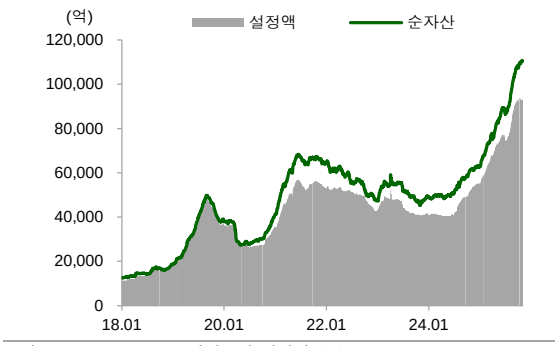
한편 같은 기간 순유출을 보인 펀드 테마 유형을 살펴보면 증시 급등에 따라 레버리지 펀드와 목표전환형 펀드에서 대거 환매가 쏟아지며 자금이 순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난 달까지 3개월 연속 순유입을 보였던 ESG펀드도 세부 유형 중 자금 유입을 주도하던 ESG(채권) 펀드가 채권 시장의 부진 영향으로 순유출로 전환된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25. 테마 유형별 자금흐름 증감 상하위 Top10

테마	설정액 (억)	순자산 (억)	수익률(%)			자금흐름(억)		
			1M	YTD	1Y	1M	YTD	1Y
ETF(해외주식)	433,080	872,853	7.93	18.68	28.38	**47,218**	194,906	245,397
ETF(기타)	375,759	380,559	0.97	5.25	5.65	**23,038**	103,208	118,987
ETF(국내주식)	658,856	846,328	18.88	70.29	54.21	**14,726**	102,518	121,292
퇴직연금(공모)	363,830	540,020	4.36	15.52	16.23	**11,660**	74,161	84,740
라이프사이클	165,506	261,499	3.85	13.76	14.89	**11,589**	41,356	49,295
금펀드	21,500	44,647	0.11	47.07	40.93	**10,756**	26,601	28,032
원자재펀드	24,638	43,096	0.51	40.43	35.12	**8,623**	20,534	21,612
가치주	38,246	70,106	11.45	56.31	49.86	**2,218**	8,299	8,332
월지급식	27,665	19,318	0.56	5.44	6.00	**1,500**	7,879	9,163
IT펀드	55,821	154,874	9.74	31.30	35.62	**1,389**	4,752	2,101
ESG(채권)	78,650	83,864	0.05	3.32	4.38	**-656**	42,027	43,894
배당주펀드	184,444	251,346	3.71	18.88	17.68	**-826**	61,782	72,870
ESG(주식)	10,524	22,665	16.46	61.34	53.29	**-890**	-6,591	-6,896
연금저축	148,652	224,630	6.44	23.74	23.23	**-1,161**	-1,187	434
녹색성장펀드	7,099	13,561	18.02	64.74	53.55	**-1,195**	-3,933	-4,455
공모주펀드	31,385	39,670	0.68	7.85	7.40	**-1,345**	-8,846	-14,023
ESG펀드	92,325	110,352	3.12	13.90	12.86	**-1,585**	35,003	36,560
EMP	11,355	18,831	4.40	13.73	15.15	**-2,280**	40	529
목표전환	23,005	23,875	4.46	17.38	16.08	**-5,433**	10,893	9,905
레버리지	86,586	106,792	34.98	128.95	95.63	**-7,723**	-39,432	-27,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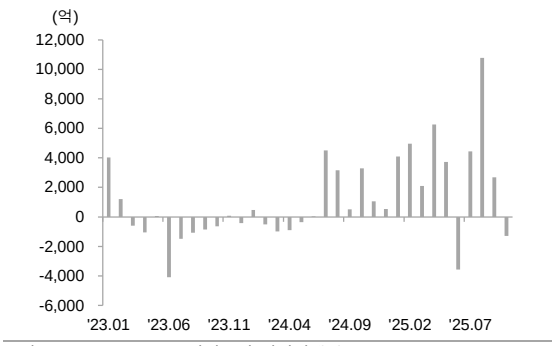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공모형 펀드 대상 ,
단위:%,억 원, 2025-10-31, 1M 자금흐름 기준 정렬

도표 26. ESG 펀드 설정액 및 순자산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7. ESG 펀드의 월별 자금 흐름 추이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2025년 3분기 글로벌 ESG 펀드 동향

2025년 3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은 다시 1분 기 만에 순유출로 전환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은 지난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둔화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심지어 1분기와 3분기 대규모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3분기 글로벌 ESG(≒책임투자)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1억 달러 순유출 기록

최근 발표된 모닝스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ESG 펀드(모닝스타 분류 기준: Global Sustainable Fund)로의 분기 자금 흐름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1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특정 고객 연기금이 블랙록이 관리하는 ESG 운용 위탁 계좌(ESG mandates account managed by BlackRock)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블랙록 영국 법인의 펀드에서 48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가 출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블랙록 펀드 고객의 위탁 계좌로의 이전을 제외하더라도, 글로벌 ESG 펀드는 3분기에 약 72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분기의 62억 달러 순유입과 비교하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를 전후로 ESG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 증가 속에 ESG 펀드는 2021년 한때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었다. 2021년 연간 6,450억 달러가 유입되며 사상 최대 호황을 보였던 ESG 시장은 2022년에는 ESG에 대한 여러 도전과 글로벌 자산 시장의 부진 여파 등으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분기마다 순유입 규모가 감소세를 보여 연간 순유입 규모는 1,610억 달러에 그치며 직전 해 대비 75% 감소했다. 이후 2023년에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와 함께 높은 금리 레벨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등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감소해 연간 순유입 규모는 630억 달러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불확실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AI 붐, 지정학적 위험 지속 등 복합적인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연간 ESG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 규모는 직전 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1분기에는 불확실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인공지능 붐, 지정학적 위험 지속 등 복합적인 거시 경제적 속에서 자금이 순유출 되었으며 2분기에는 증시의 상승과 함께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순유입을 기록했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는 블랙록 내부 고객 자산 이전으로 블랙록 영국 법인의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출회된 데다가 이외에도 유럽, 미국, 일본 지역의 ESG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대규모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적인 글로벌 펀드 시장의 자금 흐름은 2025년 들어 3분기에도 순유입을 보이며 7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 중

한편 모닝스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에는 일반적인 글로벌 펀드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은 지난 분기 2,290억 달러 순유입에서 크게 증가한 5,110억 달러가 순유입 되면서 7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또한, 기간 시작 시점의 총자산 대비 순유입으로 계산하는 유기적 성장률도 +0.9%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글로벌 펀드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은 2022년이후 매 1분기에는 순유입 기록했으나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매 분기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2년 1분기 +1,410억 달러, 2023년 1분기 +770억 달러 순유입, 2024년 1분기 +520억 달러 순유입 등 매 1분기 순유입 기록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2022년, 2023년에는 매 분기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조정 영향 등으로 2,000억 달러 내외의 순유출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순유출 규모가 대폭 감소해서 -190억 달러 → - 30억 달러 → - 190억 달러 흐름을 보인바 있다. 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고금리, 계속되는 경기 침체 우려 등의 거시경제적 역풍에 직면해 투자 심리가 약화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이후 글로벌 증시의 강세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순유입 흐름도 개선되며, +520억 달러 → +2,000억 달러 → +3,730억 달러 → +8,470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5,300억 달러 → +2,290억 달러 → +5,110억 달러 순유입되며 7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순유입 규모는 직전 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 약화 → 어려운 거시 환경 + ESG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 가중 + 그린 워싱 우려 + 일부 ESG 테마 유형의 부진한 성과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ESG 투자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비해 글로벌 ESG 펀드의 유기적 성장률은 경우 1분기 -0.37% 에서 2분기 +0.2%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3분기들어 다시 -2.1%로 하락했다. 3분기 일반적인 글로벌 펀드 시장의 유기적 성장률인 +0.9%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해까지는 순유입 규모 등을 통해 ESG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를 판단해볼 때 2020년 이후 점점 약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다. 이는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매 반기 순유입을 유지한데다가 유기적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누적 기준 순유출을 보이고, 유기적 성장률도 일반적인 글로벌 펀드를 3분기 연속 밑도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약화된 투자 심리는 부분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세계 일부 지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 어려운 거시 환경에 기인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정학적 복잡성이 지속되고 글로벌 무역 갈등 고조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변화 및 反 ESG 정책 조치로 인해 기업과 자산 운용사들이 ESG 이니셔티브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투자 규모를 축소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와 동시에 특히 올해 들어서 ESG 시장을 선도하는 유럽에서 지속 가능성의 우선 순위가 경제 성장, 경쟁력, 지정학적 리스크 및 국방 등에 비해 낮아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EU 옴니버스 패키지(규제 간소화 종합 패키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검토 등 ESG 관련 규제 변화 등의 규제 불확실성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일부 ESG 투자 전략의 성과 우려 또한 지속가능성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에 대한 비중 축소와 기술 및 기타 성장 부문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구했던 글로벌 ESG 펀드의 투자 전략이 저조한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방위산업에 대해 배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전통적인 ESG 펀드들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방위산업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자 방위산업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져가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ESG 투자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510억 달러가 순유출되며 1분기 만에 순유출로 전환됨

2025년 3분기 기준 지역별로 ESG 펀드로의 자금 유출입을 살펴보면,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사상 최대 순유출 규모인 약 510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1분기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이는 특정 연금이 펀드에서 운용 위탁 계좌로 이전 결정을 하면서 4개의 블랙록 영국 법인 펀드에서 480억 달러가 순유출 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다만 이 자금은 ESG 투자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모닝스타가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펀드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며 운용 위탁 계좌를 통해 계속적으로 ESG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73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의 보다 더 큰 순유출 규모를 기록함으로써 연초 이후 대규모 순유출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유기적 성장률도 이전 분기의 +0.4%에서 -1.7%로 급락했다.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채권형 ESG 펀드는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주식형 ESG 펀드는 대규모 순유출을 기록함

한편 자산 유형별로는 채권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지난 분기 106억 달러 순유입 보다는 줄어든 86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7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또한 직전 분기 40억 달러가 순유출 되었던 주식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이번 분기에는 블랙록 펀드의 대규모 환매 등으로 552억 달러로 순유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보다 채권형 펀드를 선호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신중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패시브 전략은 사상 처음으로 순유출을 보인 반면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순유입을 기록했음(내부 고객의 위탁 계좌로의 이전결정으로 감소한 블랙록의 4개 펀드를 제외시)

내부 고객의 위탁 계좌로의 이전결정으로 감소한 블랙록의 4개 펀드를 제외하고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패시브 전략 ESG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오던 유럽 지역에서 2025년 3분기 들어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분기 패시브 전략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약 91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비용 효율성 및 베타와 유사한 노출에 초점을 맞춰 인기를 끌었던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가 통계가 작성된 2020년 1분기 이후 사상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 이번 분기 액티브 전략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약 60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51억 달러의 순유출을 보이며 12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1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5년 3분기에도 51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최근 12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3년 3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였던 순유출 규모는 2024년 2분기 들어 직전 분기 대비 순유출 규모가 48% 감소하고 3분기에도 57% 감소하며 미국 지역에서도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해 4분기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순유출 규모가 확대 되었으며 이 추세는 2025년 1분기까지 이어졌다. 2분기 이후 50억 달러 대의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순유출 규모는 지난 해 3분기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2년에는 매 분기마다 순유입과 순유출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었다. 하지만 2022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순유출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총 133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24년 들어서도 매 분기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 195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2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분기 순유출을 보이며 170억 달러 가까이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미국 지역의 ESG 펀드의 유기적 성장률은 전분기 -1.7% → -1.4%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미국 지역의 전체 펀드 시장의 순유입 규모는 전분기 750억 달러에서 2,36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유기적 성장률도 지난 분기 +0.27% → +0.8%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ESG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ESG 반발에 일부 기인함

이와 같이 미국 투자자들의 ESG 펀드에 대한 관심 감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ESG 반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 행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반대 입장과 DEI를 겨냥한 행정명령과 그리고 ESG 이니셔티브를 폐지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反 ESG 정책 조치는 기업에 새로운 법적 위험을 초래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ESG 공약을 축소하고 ESG 펀드 규제에 따른 자격 증명과 지속가능 투자 상품을 홍보하는 데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지역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자산군별로 살펴보면 채권형 ESG 펀드가 1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됨

자금 흐름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지난 분기 9분기 만에 순유출로 전화되었던 채권형 ESG 펀드는 11억 달러 순유입 되며 분기 기준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운용전략별로는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50억 달러의 순유출을 보이며 10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또한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도 이번 분기 1.4억 달러 순유출되며 3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참고로 지난 해에도 미국 지역에서는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와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 모두 순유출을 기록했었다.

미국 지역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2023년 1분기를 제외하고 2022년 1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순유출 기록 →대표적인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운용사인 Parnassus 의 PRBLX 등이 순유출을 주도함

특히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2023년 1분기를 제외하고 2022년 1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순유출을 기록 중이다. 2024년 평균 40억 달러 내외의 순유출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50억 달러 이상이 매분기 순유출 되고 있다. 이처럼 순유출을 보인 이유는 대표적인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운용사인 Parnassus 운용사의 Parnassus Core Equity Fund(PRBLX)가 2025년 3분기에도 순유출 상위 펀드에 오르면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액티브 전략의 대표적인 ESG 펀드로 알려졌던 Parnassus Core Equity Fund (PRBLX)가 2022년 초 이후 120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순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Parnassus 운용의 펀드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는 CIT(Collective Investment Trust)의 출시와 그에 따른 투자자의 이동에 따라 모닝스타 집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arnassus Core Equity Fund(PRBLX)는 미국 내 최대 순자산 규모를 보유한 대표적인 ESG 펀드이다.

기타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10억 달러 순유입 되며 5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함

일본,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아시아(일본 제외) 등으로 구성된 기타 지역의 ESG 펀드로의 분기 자금 흐름은 약 10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5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전 분기에 8억 달러가 순유입 되었던 아시아(일본 제외) 지역은 이번 분기 동안 9억 달러가 순유입 되었다. 이는 한국, 태국, 대만 지역의 ESG 펀드에서 자금이 순유입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태국 지역에서 내국인 투자자들에게 ESG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태국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해 아시아(일본 제외) 지역의 ESG 펀드가 순유입을 기록하는 데 기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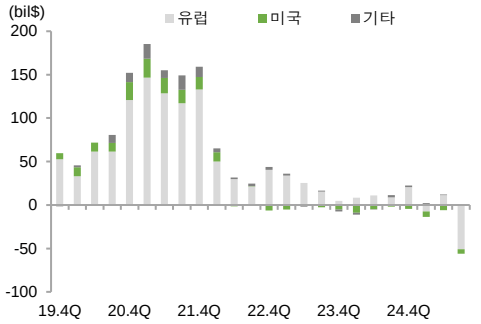
또한 직전 분기에 2.47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3분기 만에 순유출로 전환되었던 호주/뉴질랜드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5년 3분기에는 2.7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스타일 별로는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9억 달러 순유입 되었으며 반면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0.25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한편 자산별로는 주식형과 채권형을 비롯한 세부 유형 대부분 순유입을 기록했다.

또한 직전 분기 약 1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였던 캐나다의 경우 약 7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2년 만에 처음으로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와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다. 또한, 순유입된 신규 투자 자금의 74%는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였다. 자산별로는 채권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5억 달러 순유입 되며 지난 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순유입을 주도했다.

기타 지역 중 일본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8.4억 달러 순유출 되며 13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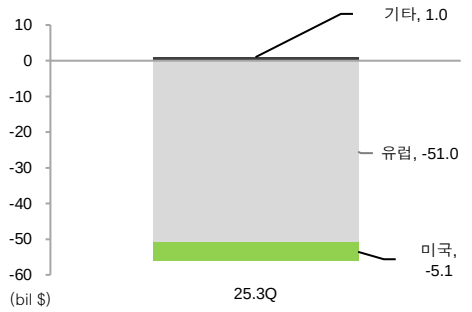
반면 12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던 일본의 경우 2025년 3분기 8.4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 전체 펀드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 유입 규모인 130억 달러 순유입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인 흐름이다. 세부 전략별로 살펴보면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약 10억 달러 순유출 되며 14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는 1.7억 달러 순유입을 보여 액티브 전략과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가 상반된 자금 흐름을 보였다.

도표 28. 분기 별 글로벌 ESG펀드로의 자금 흐름 추이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9. 2025.3Q 기준 지역별 자금 흐름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펀드 Asset: 약 3.7조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 기록

2025년 3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3조 7,35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 증가함

2025년 3분기말 기준 ESG 펀드 전체 규모는 3조 7,35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분기 증가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강세와 함께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강세 영향으로 전체 글로벌 펀드 시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모닝스타에 따르면 주요 펀드 시장 지표인 Morningstar Global Market Index와 Morningstar Global Core Bond Index가 이번 분기 동안 각각 +7.6%와 +1.9%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확실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AI 붐, 지정학적 위험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주요국의 정치 환경 변화, ESG 규제 불확실성 증가 등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ESG 펀드 규모가 성장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발표된 모닝스타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유럽 지역의 ESG 펀드들이 규제 강화에 따른 리브랜딩 등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보고서와 ESG 펀드 유니버스에서 변화가 다수 발생했으며 일부 통계 자료에 차이가 나타나서 유의가 필요하다.

유럽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3조 1,870억 달러로 직전 분기 말보다 4% 증가하여 전체 ESG 펀드 규모의 85% 차지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2025년 3분기 3조 1,870억 달러로 전체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의 85.3%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 대비 4% 증가했는데 이는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이번 분기 대규모 순유출을 보였으나 유럽 자산 시장의 강세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럽 지역은 전통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 2021년 3월 시행된 SFDR(Sustainable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과 같은 ESG 관련 강력한 규제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ESG 펀드 자산이 꾸준히 성장을 보여왔다. 특히 2023년 이후 글로벌 자산 시장의 상승세와 함께 성장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3.2조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럽 지역은 여러 분야에서 ESG 펀드 관련 선진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ESG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ESG 펀드가 유럽 지역의 전체 ESG 펀드 중 63%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채권형 ESG 펀드와 혼합형 ESG 펀드가 각각 24%,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 지역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주식형 펀드가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채권형 펀드는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SG 펀드 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유럽 內 운용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 운용사인 BlackRock이 강력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방형 뮤추얼 펀드 및 ETF 중 ESG 펀드 규모가 전분기 대비 0.6% 증가해 4,182억 수준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Credit Suisse를 인수한 UBS와 유럽 최대 운용사인 Amundi 순으로 나타났는데 ESG 펀드 규모는 각각 전분기 대비 2.9%,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3,670억 달러로 직전 분기 말보다 약 3.8% 증가하여 전체 ESG 펀드 규모의 10% 를 차지함

또한 2025년 3분기말 미국 지역 ESG 펀드 규모는 3,670억 달러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분기말 대비 3.8% 증가한 수준으로 이 규모는 가장 컸던 2021년 최고치와 유사한 규모이나 직전 최저치인 2022년 3분기 보다는 약 30%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미국에서는 ESG를 둘러싼 정치적 반발이 심화되자 ESG 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아 미국 지역 ESG 펀드의 자금 흐름은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증시의 호조 등으로 미국 지역의 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反ESG성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집권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ESG 투자 시장의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ESG 펀드 시장에서 고금리가 청정 에너지 및 기타 친환경 산업 등 일부 영역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후 변화 대응 및 DEI 정책에 대한 반대 행정명령과 같은 反ESG 정책 조치는 새로운 법적 위험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ESG 펀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여기에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트렌드와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자산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ESG 펀드가 미국 지역의 전체 ESG 펀드 중 83%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 지역보다 주식형 ESG 펀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뒤를 이어 채권형 ESG 펀드와 혼합형 ESG 펀드가 각각 15%,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미국 內 운용사별 운용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ETF 등 Passive 전략의 ESG 펀드에 강점이 있는 세계 최대 운용사인 BlackRock의 ESG 펀드 규모가 64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여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Vanguard(449억 달러), Morgan Stanley (incl Calvert, 372억 달러), Parnassus(36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1,810억달러로 직전 분기말에 비해 5.7% 증가하여 전체 ESG 펀드 규모의 5%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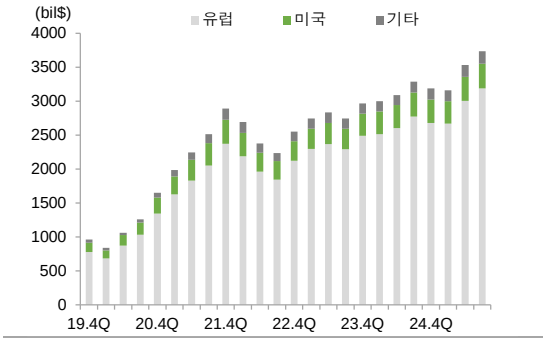
한편 일본,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아시아(일본 제외) 등을 비롯한 기타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직전 분기말 대비 10% 증가한 1,81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의 4.8% 수준을 차지했다. 기타 지역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124% 성장했으나 이후 2022년 3분기까지는 역성장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4분기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6% 가까이 성장했으며, 2024년에는 연간 7.9% 성장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역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분기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직전 분기말 대비 2.6% 증가한 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의 ESG 펀드 시장의 구성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가장 큰 3대 시장은 중국(42%), 대만(37%), 한국(10%)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채권형 ESG 펀드가 전분기 대비 8% 성장하며 증가를 주도했다. 채권형 ESG 펀드 자산은 2023년 3분기 이후 거의 5배나 증가한 반면 주식형 ESG 펀드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0% 성장에 그쳤다.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 자산은 3분기 들어 정체를 보인 반면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자산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ESG 펀드 자산 중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분기말 42%에서 44%로 증가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357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억 달러 증가했다. 호주 ESG 펀드 시장은 일부 소수 운용사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상위 10개 운용사가 전체 ESG 펀드 자산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지역은 자금 흐름이 순유입을 보이고 자산 시장의 상승 영향 등으로 직전 분기 대비 6% 증가해 410억 달러를 돌파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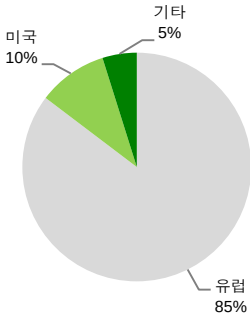
다. 또한 일본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지속적인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를 상쇄하며 230억 달러를 유지했다. 특히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규모가 전체 ESG 펀드 內 총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액티브 전략의 주식형 ESG 펀드의 규모가 전체 ESG 펀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0. 분기 별 글로벌 ESG펀드 규모 추이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1. 2025.3Q 기준 글로벌 ESG 펀드 지역별 비중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신규 ESG 펀드 출시: 사상 최저 수준 기록

2025년 3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수는 직전 분기말 대비 3.9% 감소한 7,139개로 5분기 연속 감소세 기록

2025년 3분기말 기준으로 글로벌 ESG 펀드 수는 총 7,139개로 직전 분기 대비 287개 감소하여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펀드 수 기준으로 유럽 지역의 ESG 펀드는 총 5,274개로 전체의 73.9%를 차지했으며, 기타 지역의 펀드 수는 총 1,396개로 자산 규모 비중에 비해서는 높은 1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지역의 펀드 수는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內 anti-ESG 기조 심화 등으로 ESG 펀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 18개가 감소한 총 469개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단, 2025년 2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 신규 출시 건수는 72개로 유럽과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직전 분기 대비 38% 증가

한편 2025년 3분기에는 26개의 ESG 펀드가 새롭게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분기 92개 대비 72% 감소하며 신규 펀드 개발 활동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분기 사상 최대 규모인 40개의 신규 펀드가 출시 되었던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의 신규 ESG 펀드 출시가 통계 자료 발표 이후 가장 적은 3개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 지역의 경우 직전 분기 46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20개의 신규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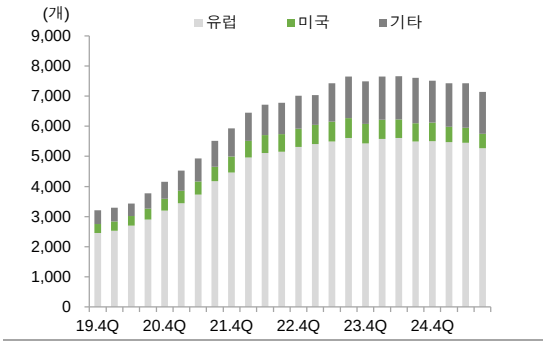
펀드가 출시 되었다. 이처럼 신규 출시가 둔화된 것에 대해 모닝스타는 거의 모든 운용사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ESG 펀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서두른 2020년 이후 3년간의 높은 성장 이후 비로소 ESG 펀드의 개발 활동이 정상화 되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25년 3분기에 유럽에서는 92개의 ESG 펀드가 폐쇄되었는데, 이 중 65개는 청산되었고 27개 펀드는 다른 펀드에 합병되었다. 이는 직전 분기의 폐쇄 건수인 125개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러한 펀드 폐쇄는 ESG 시장의 성숙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SG 펀드 산업도 성장 과정에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신규 자산을 유치하거나 좋은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펀드는 점점 더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더 나은 성과와 인기 있는 전략만 살아남는 것은 산업의 자연스러운 진화 현상으로 봐야할 것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미국 ESG 펀드 신규 출시 건수는 지난 분기 5개에서 2개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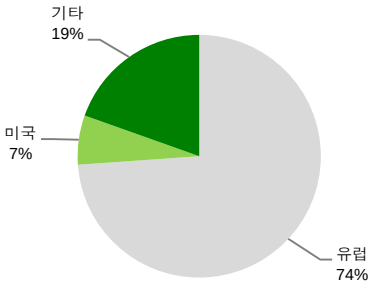
한편 올해 1분기 ESG 펀드 신규 출시가 없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미국 지역은 2분기에는 5개의 펀드가 신규 출시 되었으며 3분기에는 2개의 신규 펀드가 출시 되었다. 이는 지난 해 ESG 펀드 신규 출시가 10개에 그치며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에 출시된 연간 100개가 넘는 펀드와 비교하면 매우 급감한 상황으로 이러한 신규 펀드 출시의 급격한 둔화는 ESG 둘러싼 정치적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ESG 투자 전략에 대한 미국 內 투자자 수요도 낮아졌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표 32. 분기별 글로벌 ESG 펀드 수 추이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3. 2025.3Q 기준 지역별 ESG 펀드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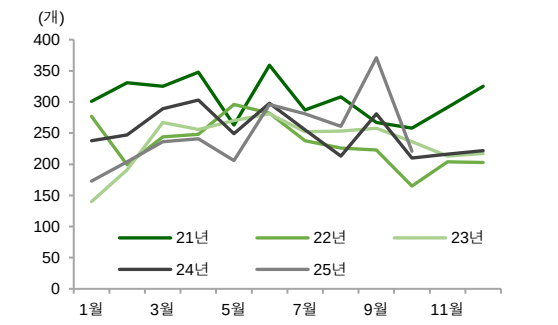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3) 국내 ESG 펀드 동향

2025년 들어 신규 ESG 펀드 출시는 단 하나도 없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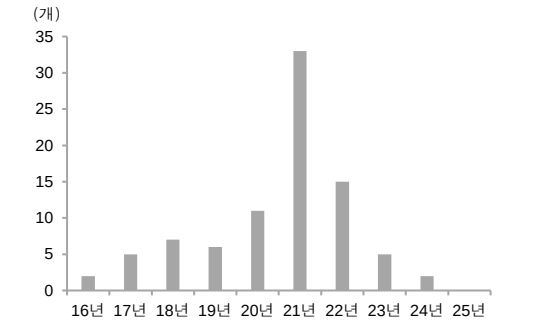
국내 펀드시장에서 신규 펀드 출시 건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라임사태 영향 등으로 한 차원 낮아진 후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ESG 펀드는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 단 한 개도 신규 출시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ESG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신규 ESG 펀드의 출시로 이어지면서 한 해 동안 33개의 펀드가 출시되었으며, 2022년에도 국내외 자산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15개의 신규 ESG 펀드가 출시 되었었다. 하지만 2023년 들어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순유출을 보이고 관련 규제 강화가 예상되자 신규 ESG 펀드 출시에 대해 운용사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신규 ESG 펀드 출시 건수는 5개로 급감했다. 2024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며 신규 출시 건수는 2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신규 출시가 10월말까지 단 한 개의 펀드도 없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표 34. 월별 국내 신규 펀드수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31기준

도표 35. 연간 국내 신규 ESG 펀드 출시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31기준

ESG펀드는 ESG에 대한 여러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ESG(채권)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연초 이후 큰 폭의 순유입을 기록. 다만 ESG(주식) 유형은 23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함

이처럼 신규 펀드 출시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10월까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ESG 펀드는 3.5조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2조 원이 순유입 된 ESG(채권) 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 채권 시장의 약세와 함께 월간 기준으로 순유출을 기록한 점은 부담이다. 한편 ESG(주식)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3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며 ESG 펀드 시장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액 300억 이상의 상위 ESG 펀드의 성과를 살펴보면, KOSPI가 연초 이후 71.2% 상승한 가운데 대부분의 펀드가 이를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는 해외 펀드 보다는 국내 펀드가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설정액 상위의 펀드 중 일부 액티브 펀드를 제외하고 패시브 펀드가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한편 채권형 ESG 펀드는 연초 이후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 채권형 보다 해외 채권형 펀드가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6. 주요 ESG 펀드 성과 추이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순자산	1M	6M	YTD	1Y
NH-Amundi100년기업그린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20200903	1,248	2,403	22.46	72.23	89.12	73.15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20090421	810	5,583	17.84	58.57	73.09	61.64
KBESG성장리더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080515	670	1,419	17.87	70.46	94.77	81.33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증권투자신탁(H)[주식](종류)	20210923	651	1,121	21.55	90.80	87.24	88.05
삼성에너지트랜지션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0210128	503	280	14.92	77.24	48.77	44.61
신한SOL미국S&P500ESG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210910	450	862	6.69	25.80	12.18	21.43
트러스톤ESG지배구조레벨업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10129	444	713	8.13	40.81	54.85	48.86
KBRISEESG사회책임투자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180226	426	928	23.38	79.68	88.30	77.48
슈로더글로벌지속가능성장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00727	426	722	4.64	16.91	12.67	10.62
트러스톤ESG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20110503	404	792	17.58	60.19	73.80	64.37
한화그린히어로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201016	381	1,024	22.65	95.51	70.88	83.33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060821	333	423	18.43	61.72	72.77	60.92
삼성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형]	20070626	328	350	6.95	33.66	24.10	20.85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증권자투자신탁 1(채권)	20081104	44,716	48,334	0.02	1.44	3.72	4.92
삼성ESG밸류채권증권투자신탁 1[채권]	20201228	5,190	5,407	0.09	1.31	3.65	4.81
삼성KODEX미국종합채권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H)	20220803	4,439	4,536	0.66	3.05	5.21	4.01
유진챔피언중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20180822	4,406	4,596	0.09	1.38	3.17	4.05
삼성KODEXESG종합채권(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20822	3,054	3,555	-0.10	1.00	2.92	4.05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20081029	3,010	3,130	0.09	1.40	3.38	4.39
한국투자e단기채ESG증권투자신탁(채권)	20160229	2,765	2,853	0.16	1.55	3.31	4.15
마이다스프레스티지책임투자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운용)	20210929	2,735	2,802	-0.02	0.99	2.92	3.90
교보악사중단기우량채ESG증권투자신탁[채권]_운용	20250807	2,431	2,434	-0.03	-	-	-
KB스타ESG우량중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운용)	20210827	1,812	1,830	0.01	1.39	3.17	4.05
키움KIWOOM단기채권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20225	690	752	0.03	1.01	2.51	3.31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20211229	660	715	0.18	1.39	2.73	3.35
다올ESG1등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20191213	653	681	0.14	1.54	3.03	3.72
삼성KODEX아시아달러채권ESG플러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0220803	516	653	2.90	3.90	4.37	10.35
키움파이어니어ESG증권자투자신탁 1[채권]	20060104	398	407	-0.53	-0.97	2.18	3.61
키움ESG중장기우량채증권자투자신탁 1[채권]	20120416	368	379	-0.55	-1.02	2.18	3.64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설정액 300억 이상 펀드 대상, 설정액 순, 단위: 억, %, 2025-10-31기준

설정액 300억 이상의 상위 ESG 펀드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은 대부분 자금이 유출된 반면 채권형으로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채권 시장의 조정으로 일부 펀드의 경우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보면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

도표 37. 주요 ESG 펀드 자금흐름 증감

펀드명	해외 펀드, ETF 여부	자금흐름 증감				
		1M	6M	YTD	1Y	2Y
NH-Amundi100년기업그린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37	-1,046	-1,160	-1,187	-2,261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193	-2,004	-2,540	-2,667	-5,419
KBESG성장리더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111	492	466	456	346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증권투자신탁(H)[주식](종류)	해외	180	673	678	703	701
삼성에너지트랜지션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해외	7	-7	-22	-36	-67
신한SOL미국S&P500ESG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 해외	19	-2	97	197	373
트러스톤ESG지배구조레벨업증권자투자신탁[주식]		-116	283	268	263	242
KBRISEESG사회책임투자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	-48	-1,689	-1,836	-1,929	-2,283
슈로더글로벌지속가능성장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해외	-53	-193	-277	-349	-1,514
트러스톤ESG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주식](운용)		-12	-83	-182	-64	99
한화그린히어로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해외	115	186	153	59	-88
우리나라기업가치향상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10	-49	-56	-63	-115
삼성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형]	해외	-18	-100	-139	-198	-498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증권자투자신탁 1(채권)		-995	14,211	27,887	28,842	41,632
삼성ESG밸류채권증권투자신탁 1[채권]		231	2,042	2,839	3,593	4,992
삼성KODEX미국종합채권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H)	ETF, 해외	429	2,154	3,440	3,398	3,762
유진챔피언중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127	522	1,532	1,622	2,788
삼성KODEXESG종합채권(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	99	371	550	582	-26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173	1,100	1,508	1,766	1,375
한국투자e단기채ESG증권투자신탁(채권)		11	330	1,272	1,305	1,608
마이다스프레스티지책임투자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운용)		10	229	481	598	945
교보악사중단기우량채ESG증권투자신탁[채권]_운용		136	-	-	-	-
KB스타ESG우량중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운용)		9	518	597	607	553
키움KIWOOM단기채권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	-218	-294	-156	-265	-455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0	-5	-100	-334	-374
다올ESG1등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57	-227	-151	-204	-117
삼성KODEX아시아달러채권ESG플러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해외	0	0	0	-127	-50
키움파이어니어ESG증권자투자신탁 1[채권]		-6	-50	-34	16	180
키움ESG중장기우량채증권자투자신탁 1[채권]		-12	-32	56	66	284

자료 :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300억 이상 펀드 대상, 설정액 순, 단위: 억, 2025-10-31기준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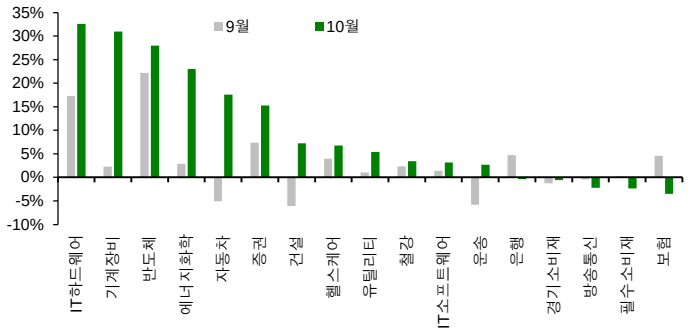
1. 국가별 주요 지수 등락률

지수	25년 10월말	1M대비	3M대비	6M대비	1Y대비
코스피	4,107.50	19.94	26.56	60.66	60.69
코스피 200	579.46	22.24	32.12	71.06	70.77
코스닥	900.42	6.94	11.82	25.54	21.18
나스닥 종합	23,724.96	4.70	12.32	35.99	31.11
S&P 500	6,840.20	2.27	7.90	22.83	19.89
니케이 225	52,411.34	16.64	27.62	45.40	34.11
항셍	25,906.65	-3.53	4.57	17.12	27.51
홍콩 H	9,168.58	-4.05	3.22	13.53	26.22
대만 가권	28,233.35	9.34	19.92	39.53	23.72
상해종합	3,954.79	1.85	10.68	20.61	20.58
싱가폴 STI	4,428.62	2.99	6.11	15.55	24.44
인도 SENSEX	83,938.69	4.57	3.39	4.61	5.73
인도네시아 IDX종합	8,163.88	1.28	9.08	20.65	7.79
태국 SET	1,309.50	2.77	5.41	9.37	-10.68
베트남 호치민	1,639.65	-1.33	9.13	33.71	29.67
독일 DAX	23,958.30	0.32	-0.45	6.50	25.58
영국 FTSE 100	9,717.25	3.92	6.40	14.39	19.82
프랑스 CAC 40	8,121.07	2.85	4.49	6.94	10.49
이탈리아 FTSE MIB	43,175.32	1.05	5.34	14.81	25.94
브라질 BOVESPA	149,540.40	2.26	12.38	10.72	15.29
러시아 RTS	982.39	-4.04	-8.33	-12.92	18.18

*단위: pt, %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2. KRX업종별 수익률



자료 : KRX,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0-31기준

3. 주요 금리 등락률

금리	25년 10월말	1M대비	3M대비	6M대비	1Y대비
콜금리(1일물중개거래)	2.51	-6.40	-0.30	-27.20	-77.40
CD유통수익률(91)	2.55	-2.00	4.00	-16.00	-88.00
CP(91일)	2.74	3.00	3.00	-17.00	-77.00
회사채(무보증3년AA-)	3.12	10.00	17.00	25.40	-38.10
회사채(무보증3년BBB-)	8.97	10.40	19.00	35.20	-37.00
통화안정(364일)	2.40	8.50	12.50	2.90	-44.80
통안채(2년)	2.65	13.50	24.50	33.30	-29.90
금융채(산금채1년)	2.65	6.20	14.80	11.10	-55.40
국채(국민주택채권1종5년)	2.98	10.80	26.60	44.20	-20.00
국고1년	2.44	11.30	14.10	6.40	-43.70
국고3년(국채관리기금채3년)	2.72	13.40	25.60	44.90	-22.00
국고5년(국채관리기금채5년)	2.86	12.10	26.70	48.00	-14.30
국고10년	3.06	11.00	27.60	49.80	-3.90
국고20년	3.07	15.20	25.70	52.30	5.70
국채금리_미국국채(10년)	4.10	-4.90	-25.90	-6.60	-18.00
국채금리_영국국채(10년)	4.40	-29.40	-16.80	-3.40	-4.10
국채금리_일본국채(10년)	1.66	1.10	10.60	34.30	72.20
국채금리_독일국채(10년)	2.64	-7.51	-5.61	19.69	24.54

*단위: bp, %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4. 주요 환율 등락률(WON/각 국 통화)

통화	25년 10월말	1M대비	3M대비	6M대비	1Y대비
미국(달러)	1,430.70	1.76	2.56	-0.47	3.98
일본(100엔)	929.00	-2.25	0.38	-6.10	2.71
홍콩(H.달러)	184.11	1.91	3.60	-0.65	4.02
중국(위안)	200.88	1.85	3.83	1.70	3.98
싱가포르(S.달러)	1,099.78	0.90	2.35	0.30	5.50
인도(루피)	16.12	1.83	1.13	-5.12	-1.53
필리핀(페소)	24.38	1.04	1.75	-5.25	3.35
인도네시아(100루피아)	8.62	2.01	1.41	-0.69	-1.93
태국(바트)	44.17	1.94	3.69	3.01	8.47
오스트레일리아(A.달러)	936.54	0.70	4.52	2.08	3.45
뉴질랜드(N.달러)	818.93	0.54	-0.26	-3.55	-0.42
EU(유로)	1,650.38	0.03	3.62	1.63	10.19
영국(파운드)	1,882.09	-0.43	2.17	-1.45	6.02
스위스(S.프랑)	1,778.37	0.76	3.56	2.55	11.63
러시아(루블)	17.71	4.42	2.97	1.03	25.34
브라질(레알)	266.15	0.74	6.87	5.04	12.05

*단위: %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